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신명희(申明熙)**

이혜원(李惠媛)***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가정환경 하위 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자기조절학습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504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진단 검사와 자기조절학습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환경 중 심리환경은 구조환경이나 지위환경에 비해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의 심리환경 변인 중 부모의 능력 평가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 지위환경이 심리환경인 지원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지지적인 태도와 관심이 자녀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주요어 : 가정환경, 심리환경, 자기조절학습,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

I. 서론

본 연구는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동기, 인지,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원으로 대학원 총학생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행동을 끊임없이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기조절학습을 잘 하는 학습자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자기조절학습 관련 연구는 학습자 개인적 측면에서 자기조절학습을 설명, 예측하고 발달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학습은 학습자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일어난다. 학습자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과 자기조절학습의 관련성을 파악한다면 자기조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 중 가장 기본적 환경인 가정환경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을 밝혀내는 것은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발달을 위해 가정 내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 중 지난 25년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학습자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1980년대에 심리학 분야 중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Zimmerman 등의 학자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을 조절해 나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래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198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니만큼 연구 초기에는 자기조절학습의 개념이나 구성요소,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에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자기조절학습 관련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교수-학습과정의 결과인 학업성취와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다. 정미경(1999)의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구조분석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은 학업성취의 30%, 중학교 2학년은 학업성취의 32%, 고등학교 2학년은 학업성취의 18%가 자기조절학습 모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조절학습의 구성 요인을 규명한 연구이다. 권성연 외(200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의 단계와 단계별 구성 요인, 그리고 구성요인들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자기조절학습이 전사고, 수행, 평가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포함되는 요인들을 구성하였다. 박성익 외(2004)는 자기조절학습의 구성 요인은 초인지 요인, 학습전략 요인, 동기 요인 세 가지이며, 이러한 요인들과 학업성취도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세 번째, 자기조절학습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연구이다. 정미경(2000, 2003, 2005)은 초등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의 표준화와 중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 대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했으며, 양명희(2000) 역시 자기조절학습의 모형을 탐색하

고 타당화했다.

네 번째, 자기조절학습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다룬 연구이다. 김형수 외(2007)는 메타분석에 기초한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적 구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들은 1990년 이후 발행된 국내 학위 및 학술지 논문 37편을 분석해 89개의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는데, 분석 결과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73($U_3=76.73\%$)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목표지향성, 학습동기, 지연행동, 불안수준, MBTI 성격 차원 등 학습자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김은영 외, 2006; 권성연, 2008; 서은희, 2007; 양명희, 2005; 양명희 외, 2006; 한민경, 2009).

양명희(2002)는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Strage(1998)는 학습자의 학습 환경 특징이 학습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힌 연구는 많지만, 가정환경이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자기조절학습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들 중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 대부분이 가정환경 중 일부 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다루거나, 몇몇 연구들 간에도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가정환경 중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 친밀감이 자기조절학습과 정적인 상관관계(Strage, 1998; Lee 외, 2007)를 보이며, 부모 학력, 부모의 기대나 지원이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박동춘, 2007)가 있는 반면, 가정형편이나 형제수에 따른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정정애, 2008)도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지능과 같이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처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발달 가능하다(Cross 외, 1988).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변인을 다룬 연구가 많지 않고, 가정환경과의 관련성을 다룬 소수 연구들이 일관적 결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여러 배경 변인 중 학습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정환경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둘째, 가정환경 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이 자기조절학습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 고찰

1. 가정환경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은 일반적으로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으로 나뉘며, 이 중 가정환경은 인간이 일차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으로 학습자의 행동특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환경은 대체로 지위변인과 과정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위변인은 정적인 환경으로 부모의 결혼 여부, 거주지의 생태적 환경,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성원 등이 포함되고, 과정변인은 동적인 환경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집안 분위기 등 학습자의 독특한 특성 발달에 관련된 심리적 환경을 포함한다(임창재, 1994). 송인섭 외(2006)는 중·고등학생용 가정환경 검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그들은 관련 문헌과 기존에 개발된 가정환경 검사의 구성요인에 근거하여 가정환경의 구인으로 가족의 구조환경, 사회적 지위환경,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상정하였다. 가족의 구조환경은 출생순위와 자녀 수, 사회적 지위환경은 사회경제적 지원, 부모직업과 학력, 그리고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기대와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대 요인에는 교육기대와 부모관심이, 지원 요인에는 능력평가와 심리적 지원이 포함된다. 그들은 가정환경 구조모형의 검증을 통해 가정환경이 구조환경, 지위환경, 심리환경의 하위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진 위계모형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가족의 사회적 지위 변인이 가정환경에 대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정환경 관련 연구로 가정환경과 학업성취도 혹은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가정환경의 하위 변인인 지위 변인과 과정변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 결과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학업성취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Arbona, 2000; 윤경희, 2003), 가족 간 상호작용인 과정 변인이 구조적 변인에 비해 학업성적이나 교과에 대한 태도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Bloom, 1964; Simpson 외, 1982)도 있다. Schneider(1993)도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부모와 아동과의 토론이나 대화, 그리고 아동에 대한 기대 등이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재철(2004)은 가정환경, 학습태도, 수학성적 및 수학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학습자의 수학성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아지고, 수학성적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홍승희(1999)는 가정환경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가정환경 하위 변인 중 과정변인이 구조, 지위변인에 비해 자아개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과정변인 중 가장 높은 효과크기를 보인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양육태도 변인이라고 밝혔

다. 윤경희 외(2002) 역시 중학생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가정환경 중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경제적 지위환경보다 자녀의 자아개념이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남덕진 외(2002)는 가정환경을 부학력, 모학력, 수입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방식, 심리환경으로 나누어 초기 가정환경 변인과 자아개념의 구조관계를 밝혔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이 양육방식과 심리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방식이 자아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손진희 외(2006)는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심리환경인 부모관여와 부모-자녀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지위변인은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질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히면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환경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지위변인과 과정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위변인이 내포하는 교육적 함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과정변인의 중요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가정환경과 학습자 특성 변인, 학업성취 간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가정환경 내에서도 지위환경이 심리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를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인지와 정서, 행동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Schunk 외, 2008).

Zimmerman(1986, 1990)은 자기조절학습을 아동이 학습할 때 상위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자기조절능력이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실제적 촉진자라고 하였다. 상위인지적 관점에서 자기조절학습자는 학습을 계획, 점검, 자기평가를 하며 자신의 학습에 대한 통찰력과 확신을 가진다. 동기적 관점에서 자기조절학습자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발적이며, 과제에 본질적인 흥미를 가지고 접근한다. 행동적 측면에서 자기조절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을 선택, 구조화하고 만들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에 도움을 줄만한 정보와 조언을 구하고, 학습과정 중에 자기교수와 자기강화를 한다. 자기조절학습자는 자신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 시 상위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전략을 체계적으로 사용한다.

Pintrich 외(1986)는 '자기조절'은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단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학업 수행의 향상을 가져오는 주요인이라고 하였다.

양명희(2002)는 자기조절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자기조절의 대상에 따라 인지중심, 동기중심, 행동중심의 세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인지중심 연구는 학습자가 학습하는 동안 인지전략과 초인지전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인지전략은 학습자가 자료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으로 시연, 정교화, 조직화 전략이 포함된다. 초인지전략은 학습자가 학습하면서 자신의 인지과정을 통제,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계획, 점검, 조절로 나뉜다. Pintrich 외(1990)는 자기조절학습의 인지적 변인들과 실제적인 학습과제의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Corno 외(1983)와 Weinstein 외(1986)는 시연, 정교화, 조직화와 같은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학습 자료를 기억, 조직, 변형하면서 학습하려고 노력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동기중심 연구는 학습자가 스스로 전략을 선택하여 인지를 조절해 나가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학습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동기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초기의 자기조절학습 연구들은 학습자의 인지적 측면에만 집중함으로써 동기적 요소를 간과한 경향이 있었다.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한 동기적 특성으로 숙달목적지향성, 자아효능감, 성취가치가 있다.

셋째, 행동중심 연구는 인지와 동기만으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으며, 학습자 행동 특성 중 행동통제, 도움 구하기, 학습시간 관리 등에 관심을 두었다. 행동통제는 학습하는 동안 발생하는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지속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동기 상태를 행동으로 옮겨내는 힘이다. 행동통제와 더불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습시간이나 노력을 관리하는 것도 행동중심 연구에서 이루어진다.

정미경(2003)은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해석하여 공통점을 정리하고 종합하였다. 그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활동의 주인이 되어 학습 목표와 학습 동기를 진단하고,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며, 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행위의 주체가 되는 학습을 의미한다. 그리고 관련 문헌과 기존의 자기조절학습 검사의 구성 요인을 검토하여 자기조절학습이 동기 조절, 인지 조절, 행동 조절의 이론적 구성 요인들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학습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Zimmerman 외(1986)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전략 사용과 학업성취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자들은 높은 학업성취와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10학년 학생 각각 40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및 과제를 하거나 공부하는 동안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은 14개의 자기조절학습 하위 전략 중 13개 영역에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 비해 더 빈번히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윤광심(2003)은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에서 총 75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164개의 효과 크기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63($U_3=73.57\%$)으로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에 근거할 때,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참여 여부, 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동적인 학습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자기조절 학습능력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3.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 관련 선행 연구

지금까지 수행된 자기조절학습 관련 연구들에서 지위변인과 과정변인을 모두 포함한 가정환경변인이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나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몇몇 연구들에서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Lee 외(2007)는 대학생 대상 가족 친밀감과 자기조절학습, 학교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의 친밀감과 자기조절학습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19\sim.36$)이 있음을 밝혔으며, 가족의 친밀감은 자기조절학습 능력 총변화량의 14%를, 대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해 7.3%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 친밀도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교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학습방법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며, 자신의 학습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집중이 잘 되는 공간에서 공부하고, 학습 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동료나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rage(1998)는 가정 관련 변인과 대학생의 자기조절의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이 학습자의 자기조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14\sim.38$)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미경(2004)은 중학생 대상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형편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학습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특히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보지지가 자기조절학습과 .588을 나타냄으로써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탁수연 외(2006)는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업성취과정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증가하고,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성취동기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도가 증가하는 과정을 검증하였다. 박동춘(2007)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을 분석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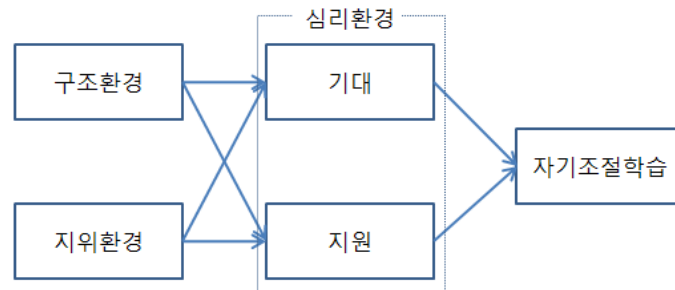
에서 가정환경을 지위환경, 과정환경, 사회적 지지환경으로 나누어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정환경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기조절학습의 각 하위변인인 인지, 초인지, 동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지위환경의 하위영역 중 부모의 학력은 자기조절학습 변인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과정환경의 하위 영역 중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지지 환경 중 정보지지가 자기조절학습 변인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정애(2008)는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조절학습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성취와 합리가 함께 4.9%를 설명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은 자기조절학습을 9.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환경 상집단은 부모양육태도의 긍정적인 하위 요인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정환경 하집단은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에서 평균이 높게 분석되었음을 밝히면서, 가정환경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그는 연구에서 형제 수에 따른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요인 중 시험준비에서만 외동아와 형제아 사이의 차이가 있을 뿐 공부 시작, 공부 지속, 긴장 이완, 공간 관리 등 나머지 하위 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김미숙(2005)은 외동아와 형제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성을 포함하는 자기조절효능감의 경우 형제아에 비해 외동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t=3.84, p<.05$).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정환경 변인은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주요한 배경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세밀하게 다룬 연구들이 많지 않고, 연구에서 다루는 각각의 가정환경 변인들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중학생(정미경, 1999)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는 가정환경 중 구조환경과 지위환경이 심리환경인 기대와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가정환경의 하위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대상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 강북구 강동,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중학교 3개교의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실시 결과 총 614명의 설문이 수집되었으며, 결측치가 있는 응답지를 제외한 504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231명(45.7%), 여학생은 273명(54.3%)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188명(37.3%), 2학년이 155명(30.8%), 3학년이 161명(31.9%)이었다.

3. 연구 도구

1) 가정환경 검사

송인섭 외(2006)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중·고등학생용 가정환경 진단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구조환경, 지위환경, 심리환경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환경은 형제 수, 출생 순위로 구성되었고, 지위환경은 부모의 직업과 학력,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

로 심리환경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 능력 평가, 심리적 지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문항은 총 64문항으로, 구조환경 2문항, 지위환경 7문항, 심리환경 55문항이었다. 구조환경과 지위환경 중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제외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좋은 것으로 설명된다. 가정환경의 하위 구성 요인별 신뢰도검증 결과는 내적합치도 지수 $\alpha=.83\sim.91$ 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 검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946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자기조절학습 검사

정미경(2003)이 개발한 중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는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기영역은 Pintrich와 De Groot(1990)의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 상위인지영역은 Paris 외(1988)가 만든 Index of Reading Awareness, 학습전략영역은 McKeachie 등(1986)이 만든 The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MSLQ)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검사 문항은 총 82문항으로 동기조절 요인이 33문항, 인지조절 영역이 29문항, 행동조절 영역이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조절학습의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시험불안을 제외하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구성 요인별 신뢰도검증 결과는 내적합치도 지수 $\alpha=.72\sim.92$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 검사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956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7과 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을 위하여 가정환경의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영역별 단순상관을 산출하여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가정환경 하위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구조환경		지위환경		심리환경								R ² (수정 R ²)	F	
					기대				지원						
					부모관심		교육기대		심리적 지원		능력평가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동기 조절	자기 효능감	-.027	-.755	.037	.951	.193	3.727***	.096	2.326*	-.152	-2.929**	.526	11.400***	.375 (.357)	49.689***
	내재적 가치	-.017	-.416	-.009	-.214	.068	1.145	.108	2.288*	.104	1.751	.272	5.187***	.190 (.180)	19.429***
	시험 불안	-.042	-.953	.032	.668	-.079	-1.221	-.073	-1.408	.061	-.943	.222	3.880***	.037 (.025)	3.147**
	목표 지향성	-.040	-.995	.009	.208	.146	2.463*	.255	6.226***	-.025	-.425	.107	2.028*	.187 (.178)	19.112***
인지 조절	정교화	-.012	-.301	.031	.694	.113	1.889	.089	1.838	-.031	-.560	.235	4.378***	.154 (.144)	15.111***
	시연	-.032	-.843	-.022	-.540	.182	3.245***	.120	2.686**	-.031	-.560	.349	7.399***	.289 (.280)	30.511***
	점검	-.017	-.436	-.014	-.315	.217	3.773***	.012	.034	.012	.034	.333	6.483***	.226 (.217)	24.250***
행동 조절	시간과 공부조절	-.009	-.222	.001	.034	.189	3.374**	-.030	-.666	-.068	-1.215	.468	9.186***	.270 (.261)	30.605***
	노력 조절	.015	.411	.046	1.159	.084	1.564	.176	4.099***	.063	1.161	.354	7.259***	.327 (.319)	40.325***
	학습행 동조절	-.008	-.214	-.070	-1.711	.187	3.413**	.149	3.419**	.085	.479	.354	7.259***	.318 (.294)	35.95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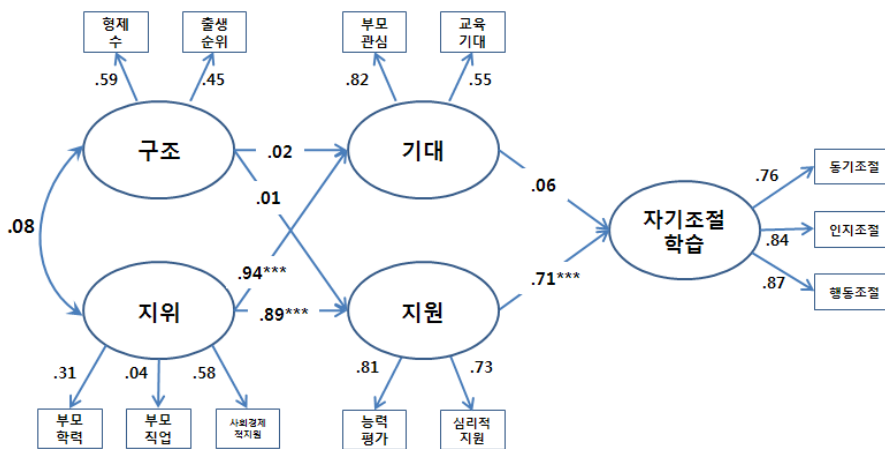
3.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경로 분석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가정환경 하위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χ^2 값은 228.109(df=47, p=.000)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고, 연구자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며, χ^2 값이 모형오류 뿐 아니라 표본크기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더 이상 널리 쓰이지 않으며, 대신 적합도 지수가 주로 이용된다. TLI와 CFI가 .90 이상이거나 RMSEA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인 경우에는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보통의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라고 해석한다(홍세희, 2000). TLI는 .869, CFI는 .906, RMSEA는 .088로 모형의 적합도는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경로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228.109(47)	.869	.906	.088



***p<.001

[그림 2]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경로 모형

[그림 2]는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과 자기조절학습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경로 모형이다. 모형에서 지위 → 지원 →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구조 → 기대, 구조 → 지원의 경로계수는 각각 .02와 .01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위 → 기대, 지위 → 지원의 경로계수는 각각 .94와 .89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p<.001). 또한, 기대 →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수는 .06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원 → 자기조절학습의 경로계수는 .7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연구모형을 검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와 지원을 포함하는 심리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위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변인은 기대변인과 지원변인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변인은 기대변인이나 지원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자기조절학습과 정적 관계를 갖는 심리환경 변인은 지원 변인이었다. 지위변인은 지원변인을 매개로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대변인은 자기조절학습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4>.

<표 4>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 (n=504)

모수	추정치
구조 → 기대	.02
구조 → 지원	.01
지위 → 기대	.94***
지위 → 지원	.89***
기대 → 자기조절학습	.06
지원 → 자기조절학습	.71***

***p<.001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정환경 하위변인과 자기조절학습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강동과 강북,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중학교 3개교의 1, 2, 3학년 504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및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는 상관을 산출하여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가정환경의 하위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환경 하위변인들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학생의 가정환경 변인은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유의한 상관($r=.616$)이 있으며, 각 하위 변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r=.120\sim.574$)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환경($r=.130\sim.574$)은 구조환경이나 지위환경($r=.120\sim.341$)에 비해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월등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가정환경 변인 중 심리환경은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R^2=.037\sim.3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환경 변인은 학습자의 동기조절 변인 중 '자기효능감($R^2=.375$)', 행동조절 변인 중 '노력조절($R^2=.327$)'과 '학습행동조절($R^2=.303$)'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환경은 자기조절학습의 동기조절 변인

1) 가정환경의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하위 변인들 중 유의수준 .01 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만 제시함.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내재적 가치', '시험불안', '목표지향성'이 포함된 동기조절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은 '능력평가'였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능력평가'와 '부모관심'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았다. '내재적 가치'는 '능력평가'와 '심리적 지원', '목표지향성'은 '교육기대'와 '부모관심'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불안'은 '능력평가'를 제외하고 가정환경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조절 변인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설명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화' 능력은 '능력평가'에 의해, '시연'과 '점점' 능력은 '능력평가'와 '부모 관심'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은 행동조절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공부조절' 능력은 '능력평가'와 '부모관심'에 의해, '노력조절' 능력은 '능력평가', '교육기대', '심리적 지원', '학습행동 조절' 능력은 '능력평가'와 '부모관심', '교육기대'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능력평가'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환경 하위변인과 자기조절학습 간 경로의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 하위 변인 중 구조 환경은 심리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지위 환경은 심리환경인 기대와 지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 변인은 다시 지원 변인을 매개로 자기조절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의 가정환경 변인과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구조환경을 제외한 가정환경 하위 변인들은 자기조절학습 하위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관련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 결과들(Strage, 1998; Lee 외, 2007)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환경 변인 중 형제 수와 출생순위를 포함한 구조환경은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위환경 역시 심리환경에 비해 자기조절학습과는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다른 심리환경에 비해 자기조절학습과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 즉 학업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자녀의 학업 능력을 믿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어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가정환경 중 구조환경과 지위환경은 자기조절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심리환경은 자기조절학습 능력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정의적 특성이 구조변인이나 지위변인보다 과정변인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Simpson 외, 1982; 홍승희, 1999; 윤경희 외, 2002; 이미경, 2004; 손진희 외,

2006; 정정애, 2008)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인지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은 지위환경이며, 동기조절과 행동조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이 과정환경임을 확인한 박동춘(2007)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능력 평가와 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이나 문제해결력, 학교생활 등 교육과 관련한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수록 학생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녀 능력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하위변인 전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학습 능력에 대한 부모의 인정과 지지가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동기와 인지,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심리적 지원'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부모의 심리적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질수록 정적·심리적 지원이 낮아짐을 밝힌 박동춘(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하위 변인과 자기조절학습 간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가정환경 중 지위환경은 심리환경인 기대와 지원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위환경이 심리환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윤경희 외, 2002; 김재철, 2004; 손진희 외, 2006; 정정애, 2008)과 일치한다. 즉,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사회경제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 자녀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심리환경 중 지원은 다시 자기조절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지지적인 환경이 자기조절학습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이미경, 2004; 탁수연 외, 2006; 박동춘, 2007; 정정애, 2008). 이 같은 결과는 가정에서 자녀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일수록 자기조절 학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 관련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으로서의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기조절학습 능력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는 가정환경 변인에 의해 일정 부분 설명된다. 특히 가정환경 변인 중 지위환경이나 구조환경에 비해 부모의 태도에 의해 변화 가능한 심리환경이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학습자 개인 수준의 훈련이나 노력에 심리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조력이 더해진다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발달에 매우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가정 변인을 구조환경, 지위환경, 심리환경의 여러 하위 변

인들로 세분화하여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자기조절학습의 하위 영역 능력 향상에 가정 내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환경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써 가정환경의 영향을 면밀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시사점에 근거하여 자녀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지지적인 가정 분위기 형성을 위한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자기조절학습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교수자나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기조절학습 능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확대된 사회적 관계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분석에 활용한 설문이 총 응답자 614명의 82.1%인 504명으로 응답률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결혼 여부를 밝히는 것이 불편한 학생이 적지 않았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연구대상의 표집이 편향되었을 수 있다. 학생의 구조환경, 지위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임교사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가 진행 된다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성연 (2008). 2 x 2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 **교육공학연구**, 24(1), 213-240.
- 권성연, 장명희 (2003). 자기조절학습의 단계와 구성요인의 규명. **교육학연구**, 41(3), 239-273.
- 김미숙 (2005). 외동아와 형제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은영, 박승호 (2006).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소로서 동기조절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학연구**, 44(3), 101-130.
- 김재철 (2004). 가정환경, 학습태도, 수학성적 및 수학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22.
- 김형수, 김동일 (2007). 메타분석에 기초한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적 구성 탐색. **상담학연구**, 8(2), 719-736.
- 남덕진, 이종승 (2002). 초기 가정환경변인과 자아개념의 관계. **교육학연구**, 40(3), 111-130.
- 박동춘 (2007).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 분석.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박성익, 김미경 (2004). 자기조절학습의 구성요인과 학습효과에 관한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5(2), 137-158.
- 서은희 (2007). 지연행동가들의 불안수준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21(3), 613-626.
- 손진희, 김안국 (2006).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7(1), 235-265.
- 송인섭 외 (2006). 가정환경 구조모형의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0(1), 1-19.
- 신명희 외 (2005). 자기조절학습과 지연행동과의 관계. **교육학연구**, 43(4), 277-292.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양명희 (2002).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3(2), 47-70.
- 양명희 (2005). 자기조절학습과 특질과의 관련성 검토 : MBTI 성격 차원과 학습유형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4), 1043-1064.
- 양명희, 오종철 (2006). 2 x 2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련성 검토. **교육심리연구**, 20(3), 745-764.
- 윤경희 (2002). 가정환경과 자아개념의 교호적 상호작용 분석.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이론과 실천**, 12(2), 45-70.
- 윤경희, 김경희 (2002). 중학생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이론과 실천**, 12(3), 5-25.

- 윤경희 (2003). 영재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331-353.
- 윤광심 (2003).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미경 (2004). 중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임창재 (1994). 학습양식. 서울: 형설출판사.
- 정미경 (1999).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구조모형 검증.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미경 (2000). 초등 아동의 자기조절학습 모형의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1(1), 25-54.
- 정미경 (2003).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 검사 개발. **교육학연구**, 41(4), 157-182.
- 정미경 (2005). 대학생용 자기조절학습 검사도구 개발. **교육평가연구**, 18(3), 155-181.
- 정정애 (2008).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 탁수연 외 (2006).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 한민경 (2009). 중다목표관점에서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2), 235-251.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승희 (1999). 가정환경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Arbona, C. (2000).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chievement in school-aged children: Precursors of career develop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270-309). N.Y.: John Wiley and Sons.
- Bloom, B. (1981). *All our children learning: A primary for parents, teachers and other educators*. N. Y.: McGraw-Hill.
- Corno, L. & Mandinach, E. (1983). The role of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learning and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18, 88-100.
- Cross, D. R. & Paris, S. G. (1988). Developmental and instructional analyses of children's metacogn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131-142.
- Lee, C. C. (2007). The relationship of family closeness with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school. *College Student Journal*, 41(4), 779-787.
- Pintrich, P. R., Cross, D., Kozma, R. B., & Mckeachie, W. J. (1986). Instruction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7, 611-651.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 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Schunk, D. H. & Zimmerman, B. J. (2008).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N. 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neider, B. et al. (1993). *Parents, their children and schools*.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Simpson, R. D. & Troost, K. M. (1982). Influences on commitment to and learning of science among adolescent students. *Science Education*, 66(5), 736-781.
- Strage, A. A.(1998). Family context variables and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college students. *Adolescence*, 33, 17-31.
- Weinstein, C. E. & Mayer, R. E. (1986). The teaching of learning strategies. In MC Wittrock(Eds.).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Macmillan.
- Zimmerman, B. J. (1986).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1, 307-313.
- Zimmerman, B. J. (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3-17.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4), 614-628.
- Zimmerman, B. J. & Schunk, D. H. (1989).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 Y.: Springer-Verlag.

* 논문접수 2010년 4월 7일 / 1차 심사 2010년 5월 20일 / 게재승인 2010년 6월 5일

* 신명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교육심리학의 이해”, “지각의 심리”, “교수방법의 심리적 기초” 등이 있다.

* e-mail: mhsynn@yonsei.ac.kr

* 이혜원: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rain228@yonsei.ac.kr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 Case of Middle-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Myung Hi Synn**

Hye Won Le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detail.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influence of respective variables of home environment, including structure environment, status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on the students' performa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This study thus leads to the specific path through which home environment influences the performa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This study surveyed 504 middle-school students in Seoul and Kyungki Province through the Questionnaire on Home Environment and the Assessment of Self-Regulated Learning. It then analyzed the survey outcomes by adopt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of the students, among several variables of home environment, has more influenced on their capacity for self-regulated learning than such variables as structure environment and status environment. The analysis leads to a conclusion that parents' optimistic view of the student's capacity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upon the capacity of students for self-regulated learning. The analysis verifies that status environm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Then parents' psychological support and view of the student's capacity among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variables influence the student's performa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Despite the recent scholarly attention to the economic circumstances and household structure, this study implies the close interactions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are still important for the improvement of academic performance of students.

Key words: home environment, psychological process environment, self-regulated learn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th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tudents' Associ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and funded by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Professor

***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Ph. D student